

Sigvaris사의 당뇨병 환자용 압박치료 기능성 양말



스위스 Sigvaris사가 압박치료 양말을 출시하였다. 출시된 압박치료 양말은 당뇨병 환자들이 개인에 맞는 적절한 양말과 신발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고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되었다.

'Eversoft Diabetic Socks'는 Optimier brands사의 '드라이릴리즈 원사(Drirelease yarn)'를 사용하고 'FreshGuard' 기술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수분의 빠른 확산과 악취를 방지하고 피부 마찰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당뇨병 환자용 양말과는 다르게 혈액순환의 개선을 위해 8~15 mmHg의 압박을 제공하며 발가락 부분에는 편평한 심 디자인으로 발의 자극을 최소화한다. 또한 늘어나는 상단의 밴드는 착용감을 증진시킨다.

Sigvaris사의 한 관계자는 우수한 섬유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제조하여 당뇨병 환자를 위한 압박치료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Eversoft Diabetic Socks'를 착용한 환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건강, 웰빙, 활동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 제품은 압박치료를 위한 양말 및 양말류로서 발목에 딱 맞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다리의 혈압 상승을 막아준다. 그리고 압박의류는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다리 통증과 피로를 완화시켜 준다. 이로서 만성정맥부전과 정맥류 등을 억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Sigvaris는 임상연구에 의해 밝혀진 많은 장점을 가지는 'Diabetic Socks' 양말을 출시하고 몇 년 전 당뇨병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압박치료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의사들은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압박치료 수준(light : 8~15 mmHg 또는 moderate : 18~25 mmHg)을 파악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압박치료법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다.

♠ www.innovationintextiles.com (2015. 02)